

삼성전자의 겨울과 반성문

[Market Analyst] 강진혁 연구원

☎ (02) 3772-2329 ✉ kjinhyeok@shinhan.com



대외 수급 이탈 요인과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

KOSPI, KOSDAQ은 각각 0.6%, 0.4% 하락했습니다. 미국 고용보고서 호조는 경기 우려 완화시키며 시장이 반색했지만, 이내 장기 시장금리 4% 돌파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. 또한 중동 불안이 유가를 재차 끌어올린 점도 물가-금리 수준에 대한 우려를 더했습니다. 개장 전 삼성전자(-1.2%) 잠정실적(영업익 9.1조원)이 기대를 밑돌며 반도체 매도세 이어졌습니다. 간밤 SMC(+15.8%)가 3분기 GPU 10만대 출하 소식에 급등하면서 Nvidia(+2.2%) 등 AI 관련주 강세였음에도, 여타 반도체주 약세(SOX -0.2%)로 국내 반도체 투심 회복 제한적이었습니다. 중국은 국경절 연휴 마치고 개장했는데, Shanghai(+4.2%) 10% 이상 상승 출발 후 상승폭을 줄였고, HSCEI(-7.6%)도 그간 상승 폭 일부 반납했습니다.

헬스케어·2차전지 강세에 선방한 KOSDAQ

KOSDAQ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 신고가 경신했고(알테오젠 +2.6%, 리가켄바이오 +4.5%), LGES(+3.9%, 3Q 호실적 + Benz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) 호재에 2차전지 투심 개선되며 KOSDAQ 지수 선방했습니다(에코프로비엠 +0.2% 등). 그나마 KOSPI 건설업(+1.2%), 서비스업(+0.1%), 의약품(+0.04%) 강세였습니다.

#특징업종: 1)비만치료제: 펩트론(+25.4%), Eli Lilly(+1.3%)와의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에 투심 개선(대봉엘에스 +3.0% 등) 2)방산: 지정학 리스크 지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(+3.7%) 신고가 경신 3)경영권 분쟁: 금감원, 고려아연(-0.5%) 등 공개매수 관련 종목에 소비자경보 발령

한글날 휴장 지켜봐야 할 이벤트들

내일 새벽 5시경 WGBI 편입 여부와 FTSE 러셀 시장 분류가 동시 발표됩니다. 한국은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 포함 후 2년 가량이 흘러 통상적인 편입 기간을 채웠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실제 편입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고, 내년 3월 가능성도 높게 쳐지고 있습니다. FTSE 지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외국인 수급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관찰대상국 지정시 하방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한편 9월 FOMC 회의록도 공개됩니다. Big cut 단행하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만큼 연준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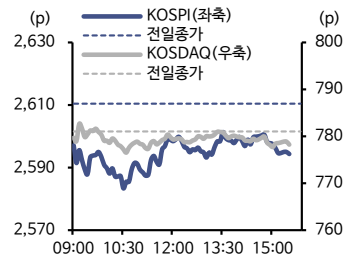
#주요일정: 1)美 9월 NFIB 중소기업 경기낙관지수(19:00)

주식시장 지표

구분	KOSPI	KOSDAQ
증가	2,594.36 (-0.61%)	778.24 (-0.35%)
상승 종목	306(↑1)	546(↑2)
하락 종목	572(↓0)	1025(↓0)
주체별	KOSPI	KOSDAQ
개인	6,932	1,015
외국인	-3,765	-904
기관	-3,497	-9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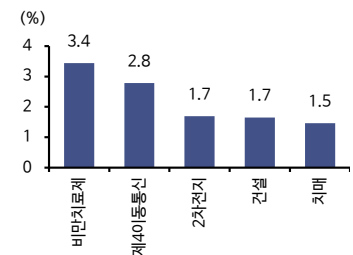
자료: 신한투자증권

KOSPI, KOSDAQ 장중 흐름



자료: Infomax, 신한투자증권

금일 주요 테마 상승률 상위



자료: 신한투자증권

Compliance Notice

- ◆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강진혁).
- ◆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,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◆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- ◆ 자료제공일 현재 조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,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◆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
- ◆ 본 조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, 대여,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.